

News

은행권, 새마을금고 소방수 역할 자처... 6.2조 유동성 공급

머리스

<https://me2.kr/FLMxR>

국내 주요 은행들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부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6조2000억원 가량의 RP 매입
새마을금고의 소규모 예금 인출 조짐도 꺾이면서 새마을금고 사태는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보임

은행 '4% 금리' 예금 반값지만...대출 이자 부담 '부채질'

데일리안

<https://me2.kr/OIDWY>

은행권에서 연 금리 4%대의 예금 상품이 다시 등장,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꺾이면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
높은 이자율의 예금을 기다렸던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, 은행의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대출 금리 상승 우려도

“그 신용점수론 대출 못 받아요” 신용대출 빚장 높이는 은행들

파이낸셜뉴스

<https://me2.kr/gKsdA>

은행권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 상승세, 연체율 상승일로에 보수적인 영업기조
중·저신용자 포용해야 하는 인터넷뱅크도, 650점 이하 신용대출 중단한 곳도 등장

디폴트옵션으로 더 치열해진 퇴직연금 시장... 은행권 전략은

파이낸셜뉴스

<https://me2.kr/kmPfu>

퇴직연금 사전운용제도가 시행되면서 34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을 두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
퇴직연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은 점유율 수성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에 주력

상반기 유상증자 7조143억...작년보다 70% 감소

파이낸셜뉴스

<https://me2.kr/giPJP>

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197개사의 유상증자 발행규모는 7조143억원으로 집계
유가증권시장의 27개사가 4조1918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전년 동기 대비 75.4% 감소

코인, 금융자산으로 인정...법인 투자 활성화될까

뉴시스

<https://me2.kr/uovzV>

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법인 투자 길이 열릴지 주목
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공정가치 개념이 정립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

전진법·소급법 논란에 금감원 보험사 CEO 소집

아이뉴스24

<https://me2.kr/bszwP>

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보험사 대표(CEO)와 IFRS17의 계리적 가정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
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'전진법'과 '소급법' 적용에 관한 의견 청취

사망담보 30억 이상 청약건 특별심사

보험매일

<https://me2.kr/bJSrR>

금융위원회는 보험협회, 유관 부처 및 기관 등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
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 특별인수 심사를 도입하고 강화된 재정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김